

서간을 통해 본 안정복의 서학 인식과 대응 양상

조 지 형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목 차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성호 문하 소장파들과의
갈등과 새로운 행보 |
| II. 서학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기초 | V. 서학 비판 연대의 모색과
반서학 인식의 확산 |
| III. 한국 천주교회의 창립과
서학의 위험성 경고 | VI. 나가는 말 |

국문 초록

본고는 18세기 후반 안정복의 서학에 대한 인식과 대응 양상을 그가 남긴 서간 19통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별히 서간에 주목한 이유는 편지의 작성 시기 및 수신자를 고려하여 안정복의 생애 주기별로 서학에 대한 인식과 대응 양상을 더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서학 비판 저술 이후 안정복의 말년 활동이나 행보를 규명하여, 한국 천주교회 설립 초기의 여러 문제들을 보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안정복은 성호 이익의 문하에 들어가면서 서학서를 접하였으며, 40대 중년기에 『천주실의』 등을 읽고 천당지옥설, 영혼론에 대한 논의를 근거로 이

* 본고는 2023년도 광주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논문임.

단성을 지적하였다. 특히 마테오 리치가 사용한 리(理)와 태극(太極) 개념의 모순성을 유교 성리학의 관점에서 비판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당시 순암의 서학에 대한 비판은 대체로 학문적인 연구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한편, 1784년 이후 성호 문하의 젊은 사류들이 본격적인 신앙 활동을 벌이자, 안정복의 서학 비판은 유교 성리학을 수호하려는 ‘벽이단’(闕異端)의 층차로 변화하였다. 이 시기는 순암이 70세를 넘긴 인생의 만년기에 해당하는데, 그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천주학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성호 문하의 젊은 사류들에게 편지를 보내 천주학을 끊을 것을 권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천학고』·『천학문답』 등의 서학 비판 저술을 남기기도 하였으며, 주변 인사들과 서학 비판 연대를 도모하는 한편, 반서학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안정복이 노병(老病)과 싸우며 세상을 뜨기 직전까지도 반서학 인식의 확산과 공유에 매진하였다는 점은 매우 특기할 만한 지점이다. 이처럼 안정복이 보여준 일련의 서학에 대한 대응 양상은 그가 왜 성호우파 즉 공서파의 핵심 인물인지를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안정복, 성호우파, 서학 비판, 벽이단, 한국 천주교회사

I. 들어가는 말

본고는 18세기 후반 순암(順菴)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의 서학(西學)에 대한 인식과 대응 양상을 그가 남긴 서간(書簡)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안정복이 지녔던 서학 인식의 변화 과정 및 서학에 대한 대응 양상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18세기 서학의 수용과 비판의 맥락에서 핵심적인 인물은 바로 성호(星湖) 이익(李瀾)과 순암 안정복이다. 이익은 조선 최초로 서학서들에 대한 전면적 독서를 통해 서교와 서학서에 대한 자신의 이해 관점을 드러내었다.¹⁾ 이후 조선의 재야 학계에서는 서학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학문적

1) 이봉규, “유교적 질서의 재생산으로서 실학: 반계와 성호의 경우”, 『철학사상』 12, 2001, 63-94 참조.

지평이 전개되었다. 무엇보다 성호 문하의 학자들은 서학과 서교를 두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성호우파 계열과, 이를 적극 수용하고자 했던 성호좌파 계열로 분화되기에 이른다.

성호우파 계열을 대표하는 안정복은 18세기 서학 비판의 중심축을 담당하면서, 서학과 서교에 대한 대응을 유교 질서의 수호를 위한 ‘벽이단’(闢異端)의 차원으로 새롭게 변화시켰다. 그는 당시 동아시아 주변국에서 진행되는 서학과 서교에 대한 대응에 주목하면서, 그 위기가 장차 천주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성호 문하의 젊은 사류들에게 닥칠 것을 우려하여 『천학설문』(天學設問)·『천학고』(天學考)·『천학문답』(天學問答) 등을 저술하여²⁾ 서학과 서교에 대한 체계적 비판을 가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선행 연구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다.³⁾

선행 연구에서는 대체로 안정복의 서학 비판론이 집약되어 있는 『천학문답』의 형성 과정을 살피고 이와 더불어 서학 비판의 내용과 논리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한편 최근에는 안정복의 문집, 일기, 고문서 등에 나타난 기록을 통해 한국 천주교 설립 초기의 동향에 관한 기초적 사실을 규명한 연구⁴⁾도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안정복이 성호우파 계열의 중심인물로서 18세기 서학 비판의 맥락을 이해하고 아울러 한국 천주교 설립 초기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 2) 참조: 서종태, “順菴 安鼎福의 <天學設問>과 <天學考>·<天學問答>에 관한 연구”, 『敎會史研究』 41, 2013, 5-71; 조지형, “안정복의 「천학문답」에 대한 비평과 반서학적 인식의 확산: 손재 남한조의 「안순암천학혹문변의」”, 『국학연구』 38, 2019, 355-383.
- 3) 안정복의 서학 인식에 대한 주요 논문은 최동희 외 15인, 『순암 안정복의 서학인식과 교육사상』, 순암연구총서 5,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2에 재수록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성과는 다음을 참조: 최동희, “안정복의 서학비판에 관한 연구”, 13-62; 이원순, “안정복의 천학론고”, 89-128; 강재연, “안정복의 서교비판”, 129-138; 금장태, “안정복의 서학비판이론”, 139-160; 함영대, “순암 안정복의 서학 인식과 『천학문답』”, 197-228. 이 외에도 다음을 참조: Adam Bohnet, 『下學의 입장에서 본 順菴 安鼎福의 천주교 비판』,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2001; 원재연, “순암 안정복(安鼎福)과 광암 이벽(李穡)의 서학(西學) 인식”, 『敎會史學』 4, 2007, 5-28.
- 4) 조현범, “순암 안정복의 기록에 나타난 조선 천주교의 초기 상황: 문집, 일기, 고문서를 중심으로”, 『藏書閣』 48, 2022, 56-85 참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인물임을 말해 준다.

본고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논의 성과를 수용하는 가운데, 특별히 안정복의 서학 인식과 대응 양상이 드러나 있는 서간에 주목을 하고자 한다. 전통 시대 서간은 개인적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특정인의 교유(交遊) 관계뿐만 아니라 학문적 경향, 세계관 등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또한 편지는 구체적인 수신자와 작성 시기가 표기되어 있어, 수록 내용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가 가능하다. 따라서 안정복의 서학 인식과 대응 양상이 드러난 서간에 대해 주목하는 것은, 대체로 안정복의 서학 비판 내용 및 논리만을 규명하고자 한 선행 연구들과 연구 방법론 및 시각을 달리하면서, 안정복의 생애 주기별로 서학 인식의 변화 과정 및 서학에 대한 대응 양상의 실질을 보다 자세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특히 안정복이 지녔던 서학 인식이나 비판의 논리 체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명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서학 비판 저술 이후부터 숨을 거둘 때까지 이른바 인생 말년의 활동이나 행보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된 바가 없다. 안정복의 말년 행보에 대한 추적은 한 편으로는 한국 천주교 초기 상황을 보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안정복의 서학 인식과 대응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서간은 그의 문집인 『순암집』(順菴集)⁵⁾에 11통과 『순암부부고』(順菴覆瓿稿)⁶⁾에 14통이 실려 있는데, 동일한 서간이 양쪽에 모두 실려 있는 것을 고려하면 모두 19통이 있다. 참고로 『부부고』는 안정복이 자필로 자신이 쓴 글을 모아 정리한 초고본이며, 『순암집』은 이 초고본을 토대

5) 安鼎福, 『順菴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출간본으로는 安鼎福, 『順菴集』, 한국문집총간 229, 230, 한국고전번역원, 1999. 원전과 출간본 동시 참조, 이하 『순암집』으로 표기).

6) 安鼎福, 『順菴覆瓿稿』,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출간본으로는 安鼎福, 『順菴覆瓿稿』, 上·下, 한국사료총서 56, 국사편찬위원회, 2012. 원전과 출간본 동시 참조, 이하 『부부고』로 표기).

로 그의 제자인 황덕길(黃德吉)이 첨삭을 가한 뒤 안정복의 후손들이 전사(轉寫)하고 활판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따라서 두 자료 사이에는 선후 관계가 존재하며, 동일한 서간이라 하더라도 『부부고』의 것이 삭제나 축소된 부분 없이 원본에 가깝다. 안정복의 서학 관계 서간 목록을 작성 시기에 따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안정복의 서학 관계 서간 목록⁷⁾

	제 목	작성 시기	소 재	수신자
1	上星湖先生 別紙	1757년	『순암집』 卷2	李瀾
2	上星湖先生書 別紙	1758년	『순암집』 卷2	李瀾
3	答權旣明書	1784년 11월 22일	『순암집』 卷6 『부부고』 卷10	權哲身
4	答權旣明書	1784년 12월 3일	『순암집』 卷6 『부부고』 卷10	權哲身
5	與權旣明書 (與旣明第三書 兼呈士興)	1784년 12월 14일	『순암집』 卷6 『부부고』 卷10	權哲身 李基讓
6	與李載南載績書	1784년 12월	『부부고』 卷10	李載南 李載績
7	與柳玉卿書	1784년 12월	『부부고』 卷10	柳玉卿
8	答士興	1785년 1월	『부부고』 卷10	李基讓
9	答南希顏書	1785년 6월	『부부고』 卷10	南必復
10	答李士興書	1785년 6월 27일	『순암집』 卷8 『부부고』 卷10	李基讓
11	與樊巖書	1786년 윤7월 15일	『순암집』 卷5 『부부고』 卷11	蔡濟恭
12	答尹士眞慎書	1786년	『순암집』 卷7	尹慎
13	答李良翁獻慶	1787년 8월	『부부고』 卷13	李獻慶
14	答李仲章書	1787년 10월 10일	『순암집』 卷8 『부부고』 卷13	李天燮
15	答黃莘叟書	1788년	『순암집』 卷8	黃德壹
16	答良翁李參判夢瑞書	1789년 윤5월 19일	『순암집』 卷5 『부부고』 卷14	李獻慶
17	答李注書休吉書	1790년 1월 13일	『순암집』 卷8 『부부고』 卷14	李基慶
18	與良翁書	1790년 4월 20일	『부부고』 卷14	李獻慶
19	答吳聖道書	미상	『순암집』 卷9	吳錫履

7) 『순암집』과 『부부고』에 동시에 실려 있는 서간의 경우, 제목의 길고 짧음, 작성 시기 정보의 유무, 본문 내용상에서의 출입이 확인된다. 본고에서는 『순암집』과 『부부고』 양쪽의 정보를 교합하여 해당 내용 정보를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아울러 본문 내용은 『부부고』가 원전에 가깝기 때문에 각주에 원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부부고』를 인용하였다.

이상의 서간들은 1번과 2번을 제외하면 모두가 한국 천주교회의 창립을 전후한 시기부터 안정복이 사망하고 곧바로 진산사건(신해박해)이 터진 1791년 사이에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3-8번 서간의 경우 안정복의 최초 서학 비판 저술인 『천학설문』(天學設問)의 초고를 완성(1784년 11월)하고 곧바로 이를 다시 『천학고』(天學考)·『천학문답』(天學問答)⁸⁾으로 개편(1785년 3월)⁹⁾하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9-19번 서간은 서학 비판 저술로 인해 안정복이 성호우파, 이른바 공서파(攻西派)의 핵심 인물로 인식된 이후의 자신이 새롭게 마주하게 된 상황을 살필 수 있으며, 아울러 가성직 제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신앙 활동 단계로 나아가던 시기에 안정복의 반서학·반서교 활동의 양상을 추가적으로 엿볼 수 있기도 하다. 이처럼 위에 제시한 서간들은 안정복 개인의 서학에 대한 인식 및 대응 양상을 자세히 살피는 데 핵심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편지의 작성 시기 및 내용을 중심으로 안정복의 서학 인식 및 대응 양상의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II. 서학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기초

안정복이 처음 서학서를 접하게 된 것은 그의 스승인 성호 이익과 관계를 맺으면서부터이다. 안정복은 그의 나이 36세 때인 1747년 성호와 첫 만남을 가진 후 직접 방문과 꾸준한 서신 교환을 통해 학문적 교류를 지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순암은 스승의 권유로 서학서를 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호의 또 다른 문인인 하빈(河濱) 신후담(愼後聃)의 경우, 스승을 대면하는 첫 자리에서부터 마테오 리치

8) 『천학설문』의 최초 제목은 ‘천학혹문’(天學或問)이었다. 『부부고』(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에도 제목이 ‘천학혹문’으로 되어 있다.

9) 서종태, 앞의 책, 8-21 참조.

(Matteo Ricci, 1552-1610)와 그의 저술인 『천주실의』(天主實義), 『천학정종』(天學正宗)¹⁰⁾ 등을 거론하며 영혼론과 천당지옥설을 언급하였다. 이후 만남에서도 성호는 『직방외기』(職方外紀), 『영언여작』(靈言蠡勺), 『천문략』(天問略) 등의 서학서 내용을 언급하며 일독을 권하였다.¹¹⁾ 안정복의 경우 서학서를 접한 자세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지만, 성호 문하의 학문적 특성상 신후담의 사례와 유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안정복의 서간 중 서학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1757년과 이듬해인 1758년 성호에게 보낸 편지이다.

제가 근래 서양서(西洋書)들을 보았는데, 그 말은 비록 정밀하고 확실했으나 결국에는 이단의 학문이었습니다. 우리 유학(儒學)에서 몸을 닦고 성품을 기르며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할 뿐 털끝만큼도 죽은 뒤에 복을 바라는 뜻은 없습니다. 서학(西學)의 경우에는 자기 몸을 닦는 까닭이 오로지 천대(天臺)의 심판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니, 이 점이 우리 유학과는 서로 크게 다릅니다.¹²⁾

안정복은 46세 때인 1757년 성호에게 보낸 편지에서 서학은 유학과 학문의 목적이거나 수신·수양의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단의 학설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순암은 이어지는 내용에서 『천주실의』, 『기인편』(畸人篇), 『변학유독』(辨學遺讀) 등에 대한 독서 소감을 언급하며 마귀나 지옥에 대한 논의를 사례로 들어 서교가 분명한 이단이라고 단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1758년 두 번째 서간에서는 영혼론, 천당지옥설을 들어 이단성을 재차 지적하는데, 이는 모두 전형적인 유교 성리학의 관점에서 인간과 세계의 배후에 ‘근원적 존재’(天主)가 있음을 전하고자 한 주요 서학서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었다.

10) 이 책은 제목만 전해질 뿐, 아직까지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11) 신후담, 『하빈 신후담의 돈와서학변』, 실시학사 실학번역총서 4, 재단법인 실시학사 편, 김선희 역, 사람의무늬, 2014, 20, 39-47 참조.

12) “近觀西洋書，其說雖精覈，而終是異端之學也。吾儒之所以修己養性，行善去惡者，是不過爲所當爲，而無一毫徼福於身後之意。西學則其所以修身者，專爲天臺之審判，此與吾儒大相不同矣”：「上星湖先生別紙 丁丑」, 『순암집』, 한국문집총간 229, 368.

안정복의 서학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단순히 천주교 교리의 모순이나 허망함을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이단(異端)이라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 근원적으로는 서학과 성리학 사이에 존재하는 세계관 자체의 차이를 거론하고자 한 성격이 크다.

『천주실의』 제2편에서 또 이르기를 “임금이 있으면 신하가 있고 임금이 없으면 신하도 없다. 사물이 실재하면 그 사물의 이치가 있게 되고, 그 사물의 실재가 없으면 그 이치의 실재도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이른바 기(氣)가 리(理)보다 먼저라는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이 주장이 과연 어떠한지요?¹³⁾

주지하듯이, 성리학에서는 우주 만물과 인간의 존재 및 운동을 리(理)와 기(氣)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곧 기는 만물을 구성하는 요소이며, 리는 우주 만물 생성의 근원이자 만물에 내재하는 조화의 원리이다. 성리학에서는 리를 태극(太極)으로 보며, 여러 경서(經書)에 등장하는 상제(上帝)는 리와 태극의 의인화된 표현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우주 만물의 주재자가 신적인 존재 곧 천주이므로, 동아시아의 천주교 전파 과정에서 마테오 리치는 ‘천주=상제’라는 것을 중국인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리와 태극을 부정하였다. 이는 리치가 리와 태극의 개념이 천주 또는 상제와 서로 대극점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리치는 리와 태극이 이치일 뿐, 만물을 창조한 근원이 되지 못한다고 논증한다. 리치가 리와 태극 등의 성리학적 개념을 부정하는 핵심은 그것의 비인격성에 있었다. 이에 리치는 리와 기를 실체와 속성 곧 자립자(自立者, substantia)와 의뢰자(依賴者, accidens)로 구분하여, 리(理)가 그 자체로 존재하는 실체의 범주가 아니라, 사물에 의존해 있는 속성의 범주에 속한다는 해석을 통해¹⁴⁾

13) “實義第二篇，又曰：有君則有臣，無君則無臣，有物則有物之理，無此物之實，即無此理之實，此所謂氣先於理之說，此果如何”：「上星湖先生別紙」，『순암집』，한국문집총간 229, 369.

14) “夫物之宗品有二。有自立者有依賴者。物之不恃別體以爲物，而自能成立，如天地鬼神人鳥獸草木金石四行等是也。斯屬自立之品者。物之不能立，而託他體以爲其物，

리기(理氣) 개념에 대한 성리학적 인식을 전복하려 하였다.¹⁵⁾

위 인용문에서 안정복은 리가 개체의 실재에 의존해 있는 것이라고 논한 리치의 논설에 대하여, 이를 기가 리보다 우선한다는 주장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고 성호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성호전서』(星湖全書)에 전하는 성호의 서신에는 안정복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보이지 않는다. 한편 안정복은 이 문제에 대하여 이후 『천학문답』에서 한 번 더 논하고 있는데, 리치의 논의는 기가 리에 앞선다는 견해의 한 유형이며 태극으로서의 리를 부정하는 것은 곧 ‘태극생양’의(太極生兩儀)라고 한 공자(孔子)의 말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한다.¹⁶⁾

이처럼 안정복은 서학서를 접한 초기부터 성호와의 서간을 주고 받으며 서학서에 드러난 내용의 모순성뿐만 아니라, 천주교를 동양인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리치를 비롯한 선교사들이 고안한 논리 체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참고로 성호 이익은 지식 탐구에 대한 개방성을 강조하면서 서학에 대해서도 열린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반면에 안정복은 성리학적 질서를 정통으로 계승하는 입장에서 본원(本源)의 확립과 하학(下學) 공부를 우선시하는 등 유교적 법도의 준수 및 인륜의 실천에 중점을 둔 학문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학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밖에

如五常, 五色, 五音, 五味, 七情等是也. 斯屬依賴之品者. 且以白馬觀之, 曰白, 曰馬. 馬乃自立者, 白乃依賴者. 雖無其白, 猶有其馬. 如無其馬, 必無其白, 故以爲依賴也. 比斯兩品, 凡自立者先也貴也, 依賴者後也賤也. … 若太極者止解之以所謂理, 則不能爲天地萬物之原矣. 蓋理亦依賴之類, 自不能立, 曷他物哉? 마테오 리치, 『천주실의: 연구와 번역』, 송영배 외 역,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85-87.

- 15) 참조: 김선희, “天, 上帝, 理: 조선 유학과 『天主實義』”, 『韓國實學研究』 20, 2010, 227-231; 이봉규, “동서의 지적 交錯: 『천주실의』의 理 해석과 그 방향”, 『東方學志』 175, 2016, 131-137. 리치의 리와 태극에 관한 논설은 『천주실의』 제2편에서 살필 수 있다.
- 16) “上帝爲理之原, 而造此天地萬物. 天地萬物不能自生, 必有天地萬物之理, 故生此天地萬物, 安有無其理而自生之理乎. 此卽後儒氣先於理之說, 不足下矣. 孔子曰: ‘太極生兩儀.’ 又曰: ‘一陰一陽之謂道.’ 道卽理也. 若如西士之言, 則是并與孔子而斥之也. 爲吾儒者, 當明目張膽, 排擯之不暇也”. 『天學問答』, 『순암집』, 한국문집총간 230, 230.

없었다.¹⁷⁾ 하지만 이러한 순암의 비판적 입장은 어디까지나 학문적인 연구 차원에만 머물고 있었다.

Ⅲ. 한국 천주교회의 창립과 서학의 위험성 경고

안정복의 서간에서 다시 서학과 관련한 내용이 등장한 것은 1784년에 이르러서이다. 이는 앞서 성호와 편지를 통해 서학에 대한 입장을 밝힌 지 26년이 지난 시점에 해당하며, 그의 나이 73세 때인 만년의 일이다. 주지하듯이, 이즈음에는 이승훈(李承薰, 1756-1801)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오고 이에 따라 성호 문하의 젊은 사류들, 예컨대 권철신(權哲身, 1736-1801), 권일신(權日身, 1742-1792), 이기양(李基讓, 1744-1802) 등, 이른바 성호좌파 계열의 소장파 문인들이 교회를 창립하여 신앙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에 안정복은 제일 먼저 1784년 11월 22일에 권철신에게 편지를 보내, 서학에 몰두하여 공부를 하다 보니 어투나 말투가 유학자의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졌음을 경계하며¹⁸⁾ 점점 성리학적 인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전달한다. 여러 사람들 중에 권고의 대상으로 권철신을 선택한 것은 그가 성호좌파의 리더격이기도 했거니와 순암과 혼맥(婚脈)으로 묶인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인데, 그의 동생 권일신이 안정복의 사위였기 때문이다. 한편 같은 시기에 이승훈과 교류가 깊던 심유(沈澍, 1602-1688)가 안정복에게 천주학에 대해 여러 문의를 해왔던바, 안정복은 이때다 싶어 심유의 질문에 답을 하며 이후 서학 비판 저술의 기초가 되는 『천학설문』을 지었다.

하지만 순암의 이 같은 권고성 편지 한 통으로 천주교를 저버릴

17) 이익과 안정복의 성리학에 대한 입장의 차이는, 안정복이 이익과의 첫 만남에서 주고받은 이야기를 정리한 『函丈錄』, 『순암집』, 한국문집총간 230, 114-120 참조.

18) “承諭公書，大異前日規模，頗帶伊蒲塞氣味，公何爲而有此言耶?” 「答權旣明書 甲辰十一月二十二日」, 『부부고』 卷10.

그들이 아니었다. 이에 안정복은 열흘쯤 뒤인 1784년 12월 3일에 다시 권철신에게 편지를 띄운다.

사흥(士興, 이기양)이 찾아와서 『칠극』(七克)을 빌려갔다고 하기에, 내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여겨 말하기를 “『칠극』은 사물(四勿)에 대한 각주이니, 비록 뼈를 찌르는 듯한 절실한 내용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이 책에서 무엇을 취하겠는가”라고 하였다네. 그런데 그 후 들리는 말에, “양학(洋學)이 크게 번져 아무 아무가 주동자이고, 아무 아무는 그 다음이고 그 나머지도 따라서 동화된 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고 하였다네. 나는 놀랍고 괴이함을 이길 수 없었으나, 이미 사람들의 입에 파다하게 올랐으니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 사이에 숨기고 감출 필요는 없을 듯하네. … 지금 천주학을 하는 자들이 밤낮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니, 이는 모두 불학(佛學)과 같은 것일세. 제군들은 평소에 늘상 불교를 배척했으면서 지금 천주학에는 끔찍 못하고 있네.¹⁹⁾

인용된 편지에서 안정복은 『칠극』 등의 서학서를 읽으며 공부하는 모임의 주동자인 권철신을 나무라고 있다. 권철신이 주도하는 모임에는 권일신, 이기양, 이벽 등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철저하게 비밀로 하면서 움직이고 있었지만, 안정복은 소문을 통해 젊은 사류들의 움직임을 다 알고 있으니 그들이 행하고 있는 신앙 활동에 대해 사실대로 털어놓으라고 말한다. 그리고는 자신이 보기에는 천주학이 불교의 교리와 다를 바가 없는데, 이런 천주학에 대해 젊은 사류들이 무비판적으로 빠져드는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하지만 연이어 편지를 보내 자신들을 나무라고 비판하는 안정복에 대해 젊은 사류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며 자신들의 활동을 지속하였다. 심지어 이기양은 거꾸로 안정복에게 오히려 천주학을 권하며 자신들과 함께할 것을 제안하기까지 하였다.²⁰⁾

19) “士興來借七克，心竊疑之而謂之曰：七克是四勿註脚，雖或有刺骨之談，何取於斯耶。其後轉聞洋學大熾，某某爲首，某某次之，其餘從而化者，不知幾何云，不勝驚怪。旣而浪藉於人，則不必掩遮於相好之間矣。… 今爲天主之學者，晝夜祈懇，祈免墮於地獄，是皆佛學也。諸君平日常斥佛而今束手於此”：「答權旣明書 甲辰十二月初三日」，『부부고』 卷10.

그러자 안정복은 열흘쯤 뒤인 12월 14일에 3차로 2,600여 자에 이르는 장문의 서한을 작성하여 권철신과 이기양 앞으로 보내 12가지 항목으로 조목조목 천주학을 부정하는 논리를 펼친다.²¹⁾ 하지만 안정복이 천주학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데에는 또 다른 측면의 이유가 있었다.

일전에 우사(于四, 권진)가 찾아와 하루 묵었는데, 이야기가 천주학에 이르자 그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네. “서양에서도 이 천주학을 금지하고자 죽인 사람이 천 명 만 명을 넘었으나 끝내 금지시킬 수 없었으며, 일본에서도 이 천주학을 금지하고자 죽인 사람이 또한 수만 명이었다고 하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걸 어찌 알겠는가? 더구나 지금처럼 당론이 분열되어 피차 사이에 틈을 엿보면서 상대방의 좋은 점은 감추고 나쁜 점만 드러내는 시기에, 가령 누군가 일망타진하려는 계획을 꾸며 몸을 망치고 이름을 더럽히는 치욕을 당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천주가 구제해 줄 수 있겠는가?²²⁾

위 편지에서 안정복은 자신의 친구였던 권진의 말을 인용하며, 천주학에 대한 위협성을 경고한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안정복이 일본의 사례를 거론하며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천주교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 차원에 따른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동아시아에서 천주교가 가장 먼저 전파된 일본은 17세기 에도 시대로 들어오면서 천주교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 정책을 시행하였고, 특히 1637-1638년에 일어난 ‘시마바라의 난’(島原の乱)으로 무려 약 4만여 명이 희생되었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당시 조선의 정치 현실은 남인과 노론이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젊은 사류들이 천주학을 받드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정

20) “向來，省吾力勸此學，余聞若過耳之風，其後又貽書勸之語，此學之真真實實，至謂天下之大本達道，專在於是”：『答士興』，『부부고』卷10.

21) 이원순, 앞의 책, 118-121 참조.

22) “日前，于四來宿，語到此學，乃曰：西國嘗禁此學，誅殺不啻千萬人，而終不能禁，日本亦禁此學，誅殺亦數萬人云，安知我國亦無此事乎。況此黨議分裂，彼此何覺，掩善揚惡之時乎。設有人爲一網打盡之計，而受敗身污名之辱，則到此之時，天主其能救之乎”：『與旣明第三書 兼呈士興』，『부부고』卷10.

치적인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여 자칫 잘못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전달하고 있다. 안정복의 이 같은 우려는 실제로 정조(正祖)가 죽은 다음 1801년 신유박해로 이어지게 된다.

이즈음 안정복에게 천주학은 학문적 이단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당여(黨與)나 혹은 국가의 존립과도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로 변화하고 있었다. 기실 안정복은 서양의 과학 기술이나 천문학, 역법 등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서양 학문에 대한 관심은 서교에 대한 비판 의식 속에 파묻히고 말았다. 당시 안정복은 70세를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절박한 문제의식에 힘입어 노구(老軀)를 이끌고 천주학에 대한 체계적인 비판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것은 바로 한 달여 전에 완성한 『천학설문』을 토대로 『천학교』와 『천학문답』을 저술하는 것이었다.

① 『칠극』 한 권을 예전에 성호 선생께서 보여주셔서 정성스레 읽고 돌려드렸는데, 그 안에는 실로 뼈를 찌르는 듯한 말이 많았다네. 그러나 그 노맥(路脉)을 궁구해보면 결단코 이단이네. 지금 다시 살펴보고자 하니 다시금 빌려주게나. 즉시 보고 온전히 돌려주겠네.²³⁾

② 『기인편』(畸人篇)·『영언어작』(靈言蠹勺) 두 책을 편지를 보내는 인편에 좀 보내주게나. 긴히 살펴볼 것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네. 만일 아직 다 보지 못했다면 잠시 빌려주어도 좋네.²⁴⁾

안정복은 권철신에게 세 차례나 편지를 보냈지만, 자신의 의견이 수용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에 곧바로 천주학에 대한 비판적 저술 활동에 들어갔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판의 전거로 삼을 서학서들이 긴급히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인용된 편지 ①은 성호 이익의 증손인 이재남(李載南)과 이재적(李載績)에게 『칠극』을 빌려달라는 내용이며, ②는 유옥경에게 『기인

23) “七克一書，昔年先生投示，敬玩納上，其中寔多刺骨語，究其脉路，決是異端。今欲更考，幸更俯借，旋當奉完”：「與李載南·載績書 甲辰十二月」，『부부고』卷10.

24) “畸人·靈言二書，此便付送如何。此有緊考故耳，如未盡閱，更借爲好”：「與柳玉卿書」，『부부고』卷10.

편』·『영언여작』을 빌려달라는 내용이다. 두 통 모두 권철신에게 연거푸 편지를 보내던 1784년 12월에 작성된 것이다. 유옥경은 안정복에게 청나라 전겸익(錢謙益)이 쓴 『경교고』(景教考)를 적어 보내 주기도²⁵⁾ 할 정도로 순암과 서학 비판에 뜻을 함께하고 있었다.

안정복은 이 같은 서학서들을 참고하여, 약 3개월만에 앞서 자신이 쓴 『천학설문』과 권철신에게 보낸 세 번째 편지에 적은 서학 비판의 항목들을 정리하여 이를 『천학고』와 『천학문답』으로 완성하였다.²⁶⁾ 그 시기는 1785년 3월로, 공교롭게도 형조(刑曹)에서 신앙 집회를 벌이던 이벽, 이승훈, 정약전, 정약중, 권일신 등을 적발하여 체포한, 이른바 ‘추조적발사건’이 일어난 때와 정확히 일치한다. 순암은 『천학고』에서 서교와의 교류에 대한 사실(史實)들을 고증해내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천주학이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님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이다. 또한 『천학문답』에서는 리치가 『천주실의』에서 사용하였던 기술 방식을 역이용하여, 천주학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로써 안정복은 성호우파, 곧 공서파의 핵심 인물로 자리하게 된다. 그리고 이 같은 저술들로 인해 1801년 신유박해 때는 박해를 주도한 노론 세력들로부터도 칭송을 받고 아울러 관직도 추증되게 되었다.

IV. 성호 문하 소장파들과의 갈등과 새로운 행보

안정복은 성호 문하의 젊은 사류들이 행하고 있는 일련의 신앙 활동에 대해 여러 차례 자제를 촉구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서학 비판 저술 활동으로 인해 반서학 활동의 중심인물로 부상하였는데, 이제 그와 성호 문하 소장파와의 관계는 돌이키기 어려운 방향으

25) “昨日, 柳玉卿錄示錢牧齋景教考一節”: 『與旣明第三書 兼呈士興』, 『부부고』 卷10.

26) 『천학고』와 『천학문답』에 대한 자세한 저술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서종태, 앞의 책, 11-21; 조지형, 앞의 책, 367-374.

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기실 안정복과 젊은 사류들은 연배 차이는 꽤 났지만, 모두 지역적으로 근기 일대에 거주하는 남인계 학자들이었으며 더욱이 성호 이익을 스승으로 삼았던 학문적 선후배 관계였다. 곧 이들은 모두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학연, 지연으로도 나아가 혈연으로도 결속된 굳건한 관계였다. 그런데 이제 서학과 서교에 대한 입장 차를 두고 갈등하고 반목하는 사이가 되고 만 것이다.

안정복의 서학 비판 저술의 주지를 따르다면, 서학은 역사적으로 전혀 새롭거나 특별할 것이 없는, 그저 중국 서역을 통해 들어온 여러 잡스러운 종교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으며 또 교리상 논리적 모순이 가득한 이단 학술에 불과할 뿐이었다.²⁷⁾ 그렇다면 같은 문하의 선배로부터 이런 비판을 받은 후배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① 근래에 천주학(天主學)을 나라에서 금하고 있습니다만, 형조(刑曹)에서 선처해 주어 다른 사람까지 연루되지 않았으니 다행스럽습니다. 천주학을 믿는 사람들이 저와 절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왔기 때문에 전일에 많은 말을 하여 배척하였습니다. 이는 서로 아끼는 정성에서 나온 것인데, 저들은 도리어 저를 의심하고 꺼리며 드러내 놓고 소외시키려는 조짐이 있으니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²⁸⁾

② 천주학을 굳게 믿는 이들이 나와 절친한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학설은 우리 유학의 내용과는 다르기 때문에 나로서는 선입견을 갖게 되네. 나는 그대들의 행위가 이상한 것이나 찾고 해괴한 행동을 하는 데로 귀결되지는 않을까 염려되어 대략이나마 부족한 나의 견해로 그대와 녹암(鹿菴, 권철신)에게 질문한 바가 있으나 끝내 한 자의 답장도 받아 보지 못하였으니, 아마도 고명한 그대들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겠지. 그러나 일의 시비는 일단 차치해두고 질문이 있었는데도 답변이 없는 것은 본디 서로 절교한 사이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어찌하여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단 말인가.²⁹⁾

27) 『천학고』의 1-10항에 기술된 내용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天學考」, 『순암집』, 한국민족총간 230, 138-151 참조.

28) “近來天學有邦禁，而秋官善處，不至連累，可幸。此學多出於切緊間，故前日頗費辭斥之，蓋出於相愛之血忱，而反生疑阻，顯有踈外之漸，其不幸大矣”：『答南希顏書 乙巳六月』, 『부부고』 卷10.

29) “天學一節，出於切緊之間，而其學異於吾儒象貌，故先入爲主，恐其爲索隱行怪之歸，略以迷見，有所質問於執事及鹿菴，而終未見一字所答，其爲高明輩所棄信矣。然事之是非姑舍，有問無答，自非相絕之外，無是事也，何爲而至於此耶”：『答李士興書 乙巳六月二十七日』, 『부부고』 卷10.

인용문 ①은 1785년 6월에 안정복이 자신과 사돈 관계인 남필복(南必復)에게 보낸 편지이다. 남필복의 아들 남영이 안정복의 손자 사위였다. ②는 1785년 6월 27일에 안정복이 이기양에게 보낸 편지이다. 두 편지는 거의 같은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내용상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바로 안정복이 서학 비판 논설을 지어 성호 문하의 소장파를 비판한 것으로 인해 도리어 그들에게 꺼려지고 소외당하고 있음을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다. ①에서 형조의 선처가 다행스럽다는 것은 바로 추조적발사건이 별다른 문제없이 잘 마무리되었기 때문인데, 일부 소장파들은 이 사건의 배후에 안정복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에서는 젊은 사류 가운데 한 사람인 이기양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소장파들이 자신의 문제 제기에 아무런 응답도 없음을 힐책하며 자신이 버림받고 절교를 당한 것인가에 대해 따져 묻고 있다.

안정복은 분명 성호 문하의 후배들을 아끼고 염려하여 천주학을 만류하고 나아가 서학 비판 저술을 남긴 것인데, 이로 인해 오히려 후배들에게 의심을 사고 따돌림을 당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되었으니 답답한 마음이 컸을 것이다. 이에 안정복은 자신의 사정을 이해해줄 만한 또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문제를 털어놓기에 이른다.

근래 와서 평소 재기(才氣)를 자부하던 우리 쪽 젊은 사람들이 신학(新學, 천주학) 쪽으로 많이 가면서 진리가 여기에 있다고 너도 나도 쓸리고 있으니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거꾸러지고 빠져드는 꼴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 절친한 이들에게 대충 경계를 하였습니다. 이는 진심으로 한 말인데 상대 쪽에서는 도리어 화심(禍心)으로 말하고, 심지어는 감히 절교할 수 없는 사이인데도 절교하는 자가 생겼습니다. … 천주학을 우리 두 사람이 배척하지 않으면 누가 그 일을 할 것입니까! 웃어른으로서 마땅히 통렬하게 배척하고 엄중하게 꾸짖어야지, 하필이면 뒤돌아보고 두려워하면서 물러서는 태도를 취하신단 말입니까!³⁰⁾

30) “近來，吾黨小子之平日以才氣自許者，多歸新學，謂以眞道在是，靡然而從之，寧不寒心。不忍目睹其顛倒陷溺之狀，略施規箴於切緊之間，是出於赤心，反以禍心言之，至有不敢絕而敢絕者，…非吾二人斥之，而有誰爲之耶。爲長者當痛斥而禁呵之，何必爲顧瞻畏屈之態耶?” 『與樊巖書 丙午』, 『부부고』 卷11.

위 편지는 1786년 윤7월 15일에 남인 학자의 거두이자 성호 문하 출신으로 가장 현달해 있었던 번암(樊巖) 채제공(蔡濟恭, 1720-1799)에 보낸 것이다. 안정복과 채제공은 연배가 같은 동류이기에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안정복은 채제공에게 자신이 천주학에 빠진 문하 후배들을 진심으로 타일렀는데도 도리어 그들에게 비난을 사고 절교를 당하였음을 말한다. 그러면서 후배들을 꾸짖고 계도하며 천주학을 배척할 당사자는 당시 성호 문하의 인물 중 가장 어른 격에 해당되는 조정에 있는 채제공과 재야에 있는 자신이라고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채제공에게 서운한 마음을 전달하였다.

한편, 안정복에 대한 성호 문하 소장파들의 대응은 또 다른 방향으로도 나타나고 있었다.

① 그런데 뜻밖에 신학(천주학)이 들어와 성현의 도를 어지럽히는 바람에 어떤 사람은 “우리 선생도 신학을 배웠다”고 하니, 내가 죽기 전에 어찌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어찌 우리의 도를 어지럽히고 돌아가신 스승을 무함하여 후생을 그르치는 하나의 큰일이 아니겠는가!³¹⁾

② 성호(星湖, 이익) 선생은 명철한 자질에다 부지런하고 독실하게 공부를 하였다네. 선생이 존송한 것은 공(孔)·맹(孟)·정(程)·주(朱)였고, 배척한 것은 이단(異端)과 잡학(雜學)이었네. 경서(經書)에서도 선유(先儒)들이 발견하지 못한 뜻을 많이 발견하였으며, 이단의 학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진상을 적발하여 도피할 수 없도록 하였다네. 그런데 아무개가 “성호 선생은 서학(西學)을 하였다” 하며 배척하였다 하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³²⁾

성호 문하의 소장파들이 안정복과 학문적 논쟁을 통해 자신들의 서학과 서교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에

31) “而意外新學，爲此道之紮鄭，或謂吾先生亦嘗爲之云，我死之前，豈有是語。此豈非亂吾道誣先師誤後生之一大事乎”：『答尹士眞慎書 丙午』，『순암집』，한국문집총간 229, 489.

32) “先生以明睿之姿，加勤篤之工，所尊者孔孟程朱，所斥者異端雜學。經義多發未發之義，異學必摘其真贓，而使無所逃。某人斥之以西學云，不覺一笑”：『答黃莘叟書 戊申』，『순암집』，한국문집총간 229, 510.

소장파들은 문하의 스승이었던 성호 이익도 자신들처럼 서학을 배우고 탐구하였다는 점을 내세워 자신들의 활동을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인용한 편지 ①은 안정복과 함께 성호우파 인사였던 윤동규(尹東奎)의 손자 윤신(尹愼)에게 보낸 편지이고, ②는 안정복의 제자 황덕일(黃德壹)³³⁾에게 보낸 편지이다. 두 편지에 공통적으로 드러난 문제적 국면은 ‘성호 이익이 서학을 배우고 행하였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내세우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안정복은 이런 주장은 스승을 모함하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실 18세기 서학서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이 많았던 것이 성호 이익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안정복이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이를 구실로 성호 문하의 젊은 사류들이 천주학을 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나아가 성호학과 전체가 이단에 빠져들었다는 사회적 비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도 안정복으로서는 뭔가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였다. 이에 안정복은 자신의 서학 비판 저술인 『천학교』 마지막에 성호가 『천주실의』를 읽고 쓴 비판 논설인 『천주실의 발문』(天主實義跋文)³⁴⁾을 덧붙이는 한편, 『천학문답』에 부록(附錄)으로 2개 항목을 추가하여 성호 선생이 서양 과학 기술 및 천문학에는 관심을 보인 것은 사실이나 결코 천주학을 행한 적은 없으며, 또한 마테오 리치를 성인이라 칭송한 적도 없다는 것을 천명하고자 하였다.

① 선생(이익)의 말이 이와 같은데도 지금 이 학문(천주학)을 공부하는 자들이 간혹 말하기를 ‘선생도 일찍이 천주학을 배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견해를 주장하고 나아가 이를 정당화하려고 한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스승을 무고하는 죄에 빠져들을 깨닫지 못하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는가!³⁵⁾

② 이것은 무식한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천주학에 빠졌기 때문에 사문(師門)까지 끊어다

33) 황덕일은 안정복의 수제자로서 순암과 서학 비판 인식을 함께하여 “삼가략”(三家略)이라는 글을 지어 천주학을 배척하였다. 조지형, “順菴 西學認識의 계승과 확장, 黃德壹의 <三家略>”, 『누리와 말씀』 36, 2014, 360-367 참조.

34) 李瀾, 『跋天主實義』, 『星湖全集』 卷55, 한국문집총간 199, 516-517.

35) “按先生之言如此, 而今爲此學者間或曰: ‘先生亦嘗爲之.’ 欲伸己說 因而爲重. 而不覺自歸於誣師之科, 豈不寒心哉”: 『天學考』 13項, 『순암집』, 한국문집총간 230, 138.

가 합리화하려는 것이니, 거리낌 없는 소인배들이라 할 것이다. 다행히 내가 지금 살아 있어서 그 시비를 가릴 수 있었기에 망정이지, 내가 만약 죽었다더라면 후생들이 또한 틀림없이 그 말을 믿었을 것이다.³⁶⁾

위 인용문은 안정복이 각각 『천학교』와 『천학문답』의 마지막에 덧붙인 글로, 성호가 천주학을 행하였다는 소문은 전적으로 천주학을 행하는 젊은 사류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고자 만들어 낸 허황된 주장임을 말하고 있다. 아울러 그들의 이 같은 허황된 주장을 성호 학통을 충실히 계승한 자신이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V. 서학 비판 연대의 모색과 반서학 인식의 확산

안정복의 다각도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호 문하 소장파들의 천주학 활동은 이제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소장파들은 1786년 이른바 가성직 제도를 시행하며 본격적으로 신앙을 전파하고 있었다. 또 1787년 10월에는 이승훈·정약용 등이 반촌에 있는 김석태(金石太)의 집에서 소장반유(少壯泮儒)들과 천주교 서적을 연구, 토론한 사실이 적발된 ‘반회사건’(泮會事件)³⁷⁾이 터지는 등 천주학 관련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었다. 이즈음 안정복은 76세의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학 비판과 이를 통한 성호 문하 소장파들을 유학으로 다시금 회심(回心)케 하는 것을 생애 마지막 사명으로 여겼던 것 같다. 이를 위해 순암이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자신과 서학 비판의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연대와 협력이었다.

36) “此不過無識少輩以其自己之陷溺，并與師門而實之，可謂小人之無忌憚也。幸以我今生存，能卞其是非而已，我若已死，則後生輩亦必信其言矣”：『天學問答』附錄 1，『순암집』，한국문집총간 230，141.

37) 『正祖實錄』正祖 15年(1791年) 11月 13日 甲申 2번째 기사 참조.

① 생각해 보니 옛날 정사년(丁巳年, 1737년) 가을에 족제(族弟) 정익(廷益)과 함께한 자리에서 비록 대감의 모습을 접하기는 했으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라서 한마디 말도 서로 주고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50여 년이 되었는데 대감께서는 기억할 수 있으신지요? … 불행하게도 근자에 젊은이들에게 천학(天學)의 움직임이 있는데, 듣자 하니 대감께서 논지를 세워 배척하셨다고 하던데 그것이 과연 그럴습니까? 천하의 사변은 일정함이 없거늘 뜻하지 않게 우리 우리들 중에도 이런 자들이 있으니, 이것이 과연 하늘이 그들의 마음을 폐하고자 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찌 그 그릇됨을 모르고 마음으로 좋아하며 미혹되고 탐닉하는 것인지, 비유하건대 이는 또한 서사(西士)들이 말하는 마귀의 환롱(幻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만약 대감께서 앞장서서 그들을 깊이 배척하지 않으시면 누가 그들을 배척하겠습니까? 혹 인편을 통해 제게도 보여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³⁸⁾

② 『천학문답』을 찾아보니 과연 그런 논저(論著)가 있습니다. 근래 듣자하니 천학(天學)을 행하는 자들이 이것을 보고 비웃으며 전혀 천학의 묘처(妙處)를 모른다고 했다는 군요. … 이른바 『천학문답』과 “연경으로 사신가는 홍양호(洪良浩)에게 준 서”를 별지에 기록하여 보내오니,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이 가한지 불가한지 가르침을 주십시오.³⁹⁾

③ 보내주신 『천학문답』을 읽고 또 읽어보았는데 내용이 근엄하고 뜻이 정중하며 문장이 간결하여 흠탄하기를 마지않았습니다. … 저도 이 천주학을 배척하는 문자를 쓰기는 썼는데 한갓 남의 구설에만 오르고 그 효과는 없어 곧바로 스스로 후회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그 정본(正本)은 영남의 선비가 빌려가 없고 초본(初本)만 여기 있어 보내드리니, 보시면 그 핵심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감의 저술이 여기에 있으니 제가 지은 것과 한 책으로 합쳐 잘 보관해 두고자 합니다.⁴⁰⁾

인용문 ①은 1787년 8월에 안정복이 간옹(良翁) 이헌경(李獻慶, 1719-1791)에게 보낸 편지이다. 서두에서 순암은 두 사람이 50년

38) “憶昔丁巳秋，族弟廷益座上，雖奉英眄，稠廣中不能一語相接，迨今五十餘年矣，台能記之否。… 不幸近者少輩有天學之機，聞台立說而斥云，其果然否。天下之事變無常，不意吾儕有此事，是果天之所廢其心，豈不知其非，而甘心惑溺者，比亦西士所謂魔鬼之幻弄而然耶。若台兄居前列者，不深斥之，有誰斥之。或從便示及，幸甚幸甚”：『答李良翁獻慶 丁未八月』，『부부고』 卷13.

39) “俯索天學問答，果嘗有所論著。近聞爲此學者，見而笑之，以爲全不知天學妙處。… 嚮所謂天學問答及送別燕使序，別紙錄呈，俯賜詳覽，回教其不可也”：李獻慶，『寄安順菴鼎福書』，『良翁集』，한국문집총간 234, 283-284.

40) “俯示天學問答，莊玩重複，辭嚴義正，文章簡潔，不任欽賞。… 弟果有斥此學文字，徒取人言而無其效，旋自悔恨。後來正本嶺儒借去，初本在此，故茲以奉呈，可知其槩矣。盛撰留此，與鄙草同付一冊，以爲藏弄之地耳”：『答良翁李參判夢瑞書 己酉』，『부부고』 卷14.

전의 모임에서 함께 자리한 적이 있음을 상기시키며 자신을 기억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두 사람은 공히 남인 계열에 속한 인사이기에는 하였지만 오랜 기간 전혀 왕래가 없었던 것이다. 이현경은 1875년 무렵 안정복과 같은 제목의 『천학문답』(天學問答)이라는 논설을 지어 ‘서학서를 모두 불태워버리고 그 학설을 모두 추방하자’는 적극적인 방안을 제기했던 당시 남인 계열의 공서파 인물 중에는 가장 강경한 주장을 한 인물이다.⁴¹⁾ 안정복은 편지에서 근래 성호 문하의 젊은 사류들이 천주학을 결행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이현경이 서학 비판의 논설을 지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실제로 그것이 맞는지 묻는다. 그리고는 해당 자료를 인편을 통해 자신에게도 보여주기를 부탁하고 있다.

순암의 편지를 받은 이현경은 곧바로 답장을 보낸다. ②에서 이현경은 자신이 천주학을 비판하는 논저를 지은 적이 있음을 확인시키고 있다. 하지만 천주학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도리어 ‘천학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한 비판적 논저를 지었다’고 하는 비웃음을 샀음을 언급하며, 자신이 지은 『천학문답』과 앞서 홍양호가 연경으로 사신 갈 때 지은 “송서”⁴²⁾를 함께 보낼 터이니, 실제로 자신의 논설이 논리적으로 적절한 것인지의 가부를 좀 알려 달라고 부탁을 한다.

그러자 안정복은 이현경의 논저를 받고 1789년 그에 대한 답장을 다시 보낸다. ③에서 안정복은 이현경의 『천학문답』을 읽고 또 읽었는데 내용상에도 문체상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오히려 매우 훌륭하였다고 답하면서 이현경을 치켜세우고 있다. 또 자신도 서학에 대한 비판적 논저를 지었다가 남의 구설에 올랐던 점을 언

41) 조지형, “18세기 西學 비판의 맥락과 艮翁 李獻慶의 <天學問答>”, 『教會史研究』 50, 2017, 12-19 참조.

42) 홍양호가 연경으로 사신 갈 때 지은 송서란 1782년 10월 홍양호(洪良浩)가 동지겸 사은부사로 연경(燕京)에 갈 때 이현경이 써 준 글로, 중국에 천주학이 성행하는 현실을 거론하며 중국 사람들이 천주학을 처음 접하면서도 이를 괴이하다고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완전히 매료되어 존신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李獻慶, 「送洪侍郎良浩燕槎之行序」, 『艮翁集』, 한국문집총간 234, 407-408 참조.

급하며 두 사람이 동병상련의 처지에 놓여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어 안정복은 자신의 천주학 비판 저술도 한번 살펴보라며 이헌경에게 보내주고, 아울러 자신의 저술과 이헌경의 저술을 한 책으로 합쳐서 잘 보관해 두겠다고 약속까지 한다. 이처럼 두 사람은 ‘서학 비판’을 매개로 자신들이 지은 서학 비판의 저술을 공유하고 함께 반서학적 입장을 견지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안정복의 반서학 연대는 자신과 동년배뿐만 아니라 후배 그룹에게도 이어졌다. 그도 그럴 것이 안정복으로서는 앞으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사후에도 자신과 같은 반서학적 대응을 이어갈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① 요즘 우리 유학의 도가 장차 끊기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이단의 학문에 물들고 있으니 제 손으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직 산남(山南)의 여러 벗들이 대업에 더욱 힘써 우리 유학의 도를 보존케 하는 것이 나의 생사간(生死間)에 바램입니다.⁴³⁾

② 대저 요즘 세상의 학술은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네. 고인(古人)이 말하기를 “불교와 노장(老莊)의 폐해가 양주(楊朱)·묵적(墨翟)보다 더 심하다”고 하였는데, 지금 천주학의 폐해는 불교와 노장보다도 더 심하며 속학(俗學)의 폐해는 천주학보다도 더 심하니, 선비가 학문을 할 적에 마땅히 시대의 폐단을 살펴 바로잡아야 할 것이네. … 그대(이기경)는 영예로운 길에 이름이 올라 앞길이 매우 원대하기 때문에 이 늙은이가 사리에 어두운 말로 고해주는 것이니, 비웃거나 물리치지 않겠지? 양해해 주시면 다행이겠네. 병으로 누워 있어 숨이 차서 남을 시켜 어렵게 편지를 쓰네.⁴⁴⁾

인용문 ①은 1787년 10월 10일에 안정복이 경상도 예천의 이천섭(李天燮)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천섭은 영남 지역의 남인 학자인데, 안정복은 근기 남인 소장파들이 천주학에 빠져 있는 현실을 영남 지역에 전달하는 동시에, 유학의 대업에 힘써 유학의 도를 보존

43) “今世吾道殆將絕矣，此中染於異學，非我隻手可障，惟冀山南諸友益懋大業，以幸吾道，死生之望”：『答李仲章書 丁未』，『부부고』卷13.

44) “大抵今世學術歧異，古人云：‘佛·老之害，甚於楊·墨。’今則天學之害，甚於佛·老，俗學之害，甚於天學，士之爲學，當觀時弊而矯之。… 公策名榮途，前程甚遠，故以此老生迂濶之言告之，其不笑之而揮擲否。幸諒之。餘病伏氣喘艱倩”：『答李注書休吉書 庚戌』，『부부고』卷14.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기실 18세기 근기 남인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반천주교 인식을 영남 지역 남인들에게 전파 확산시킨 것이 다름 아닌 안정복과 그의 제자 남한조(南漢朝)였다. 이에 근기 남인들과는 달리 19세기 영남 남인들은 여러 비판 저술을 남기며 반서학 입장을 견지하였다.⁴⁵⁾

②는 1790년 1월 13일에 이기경(李基慶)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기경은 본래 정약용(丁若鏞)과 막역한 사이로 한때 이승훈·이벽 등으로부터 서학서를 얻어 보고 천주교에 관심을 가졌지만 이내 천주교를 멀리하고 배척했다. 참고로 1787년 반회 모임의 실상을 확인하고 이를 천주교 배척론자인 홍낙안(洪樂安)에게 폭로하여 조정에서 공론화의 계기를 만든 사람이 다름 아닌 이기경이었다. 안정복은 서학에 비판적 태도를 보인 이기경에게 편지를 보내 이단의 학문을 배척하고 그 폐단을 바로잡아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안정복은 노병(老病)으로 숨을 헐떡거리며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남을 시켜 편지를 작성하여 자신의 뜻을 전달하였다. 그래서인지 이기경은 1791년 진산사건 때 영의정 체제공을 천주교 탄압에 미온적이라 하여 공박하기도 하고, 이승훈이 천주교 서적을 간행하고 있다고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또 천주교를 배격하는 『벽위편』(關衛編)을 짓기도 하였다.

이처럼 안정복은 70세를 훌쩍 넘긴 생애 말년기에 눈을 감을 때까지도 서학 비판에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였으며,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인사들과 서학 비판 연대를 모색하며 반서학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앞장선 투사였음을 알 수 있다.

45) 조지형, “안정복의 「천학문답」에 대한 비평과 반서학적 인식의 확산: 손재 남한조의 「안순암천학혹문변의」”, 374-377 참조.

VI. 나가는 말

지금까지 18세기 후반 성호우파의 중심인물인 안정복의 서학에 대한 인식과 대응 양상을 그가 남긴 서간 19통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안정복은 성호 이익 문하 초기 제자로서 젊은 시절부터 서학서를 접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지니게 되었다. 그는 40대 중년기에 『천주실의』, 『기인편』, 『변학유독』 등을 읽고 스승과의 견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서학이 학문의 목적은 물론, 그 내용상으로도 마귀나 천당지옥설, 영혼론에 대한 논의를 근거로 그 이단성을 지적하였다(1757년, 1758년). 무엇보다 안정복은 마테오 리치가 동아시아 지식인들에게 천주교를 전파하기 위해 성리학의 리기 개념에 대한 전복을 시도한 논리를 명확히 꿰뚫고, 유교 성리학의 관점에서 그 모순을 비판하였다. 하지만 성호와 서간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던 당시 순암의 서학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대체로 학문적인 연구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1784년 이후 이승훈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오고, 이에 따라 성호 문하의 젊은 사류들, 이른바 성호좌파 계열 소장파 문인들이 교회를 창립하여 신앙 활동을 벌이자, 안정복의 서학 비판은 유교 성리학을 수호하려는 ‘벽이단’(關異端) 층차로 변화하였다. 이 시기는 순암이 70세를 넘긴 인생의 만년기에 해당하는데, 그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성호 문하의 젊은 사류들에게 천주학을 끊을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고(1784년 11-12월), 『천학교』·『천학문답』으로 대표되는 서학에 대한 비판적인 저술을 남기기도 하였으며(1785년 3월), ‘성호 이익이 천주학을 행하였다’는 뜬소문이 나도는 국면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1786년, 1788년 8월),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인사들과 서학 비판 연대를 도모하는 한편 나아가 주변 사람들도 자신이 지녔던 반서학 인식을 확산시키고자(1789년, 1790년) 다각도로 노력을 하였다.

안정복이 보여준 일련의 서학 비판 활동은 그가 왜 성호우파 곧

공서파의 핵심 인물인지, 또 18세기 서학 비판의 맥락 속에서 어떠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안정복의 서학 비판 인식은 이후 크게 세 갈래 방향으로 확산이 되었다. 첫째는 근기 남인 계열 중 안정복-황덕일·황덕길-허전(許傳)-이남규(李南珪)로 이어지는 이른바 순암학과,⁴⁶⁾ 둘째는 안정복의 제자 남한조를 통해 영남지역 남인학자 그룹인 정종로(鄭宗魯)·조술도(趙述道)·신체인(申體仁) 등의 영남 이학파(理學派), 셋째는 근기 남인 학자로서 신해박해 및 신유박해 과정에서 천주교도에 대한 강경한 배척 활동을 벌인 이헌경·이기경·목만중(睦萬中) 등의 공서파로, 이로써 결국 18세기 서학 비판의 정점에 안정복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 투 고 일: 2022. 12. 28
수 정 일: 2023. 2. 18

심 사 일: 2023. 2. 1
계재확정일: 2023. 3. 3

46) 강세구, “拱白堂 黃德壹과 順菴系列 星湖學派의 胎動”, 『實學思想研究』 9, 1997, 92-95 참조.

참 고 문 헌

1. 자 료

利瑪竇, 『天主實義今注』, 北京: 商務印書館, 2014.

李瀾, 『星湖全集』, 한국문집총간 199, 한국고전번역원, 1999.

리치, 마테오, 『천주실의: 연구와 번역』, 송영배 외 역,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_____, 『천주실의』(天主實義) 上·下, 노용필 역, 어진이, 2021.

李獻慶, 『艮翁集』, 한국문집총간 234, 한국고전번역원, 1999.

安鼎福, 『覆瓿稿』,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_____, 『順菴覆瓿稿』 上·下, 한국사료총서 56, 국사편찬위원회, 2012.

_____, 『順菴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_____, 『順菴集』, 한국문집총간 229, 한국고전번역원, 1999.

_____, 『順菴集』, 한국문집총간 230, 한국고전번역원, 1999.

『正祖實錄』.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2. 단행본 및 논문

강세구, “拱白堂 黃德壹과 順菴系列 星湖學派의 胎動”, 『實學思想研究』 9, 1997, 73-96.

김선희, “天, 上帝, 理: 조선 유학과 『天主實義』”, 『韓國實學研究』 20, 2010, 213-262.

서종태, “順菴 安鼎福의 <天學設問>과 <天學考>·<天學問答>에 관한 연구”, 『教會史研究』 41, 2013, 5-71.

신후담, 『하빈 신후담의 돈와서학변』, 실시학사 실학번역총서 4, 재단법인 실시학사 편, 김선희 역, 사람의무늬, 2014.

원재연, “순암 안정복(安鼎福)과 광암 이벽(李櫟)의 서학(西學) 인식”, 『教會史學』 4, 2007, 63-94.

이봉규, “동서의 지적 交錯: 『천주실의』의 理 해석과 그 반향”, 『東方學志』 175, 2016, 129-166.

_____, “유교적 질서의 재생산으로서 실학: 반계와 성호의 경우”, 『철학사상』 12, 2001, 63-94.

이원순, “안정복의 천학론고”, 『순암 안정복의 서학 인식과 교육사상』, 성

균관대학교출판부, 2012, 89-128.

- 조지형, “18세기 西學 비판의 맥락과 艮翁 李獻慶의 <天學問答>”, 『教會史研究』 50, 2017, 7-44.
- _____, “順菴 西學認識의 계승과 확장, 黃德壹의 <三家略>”, 『누리와 말씀』 36, 2014, 351-392.
- _____, “안정복의 「천학문답」에 대한 비평과 반서학적 인식의 확산: 손재 남한조의 「안순암천학혹문변의」”, 『국학연구』 38, 2019, 355-383.
- 조현범, “순암 안정복의 기록에 나타난 조선 천주교의 초기 상황: 문집, 일기, 고문서를 중심으로”, 『藏書閣』 48, 2022, 56-85.
- 최동희 외 15인, 『순암 안정복의 서학인식과 교육사상』, 순암연구총서 5,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2.
- Bohnet, Adam, 『下學의 입장에서 본 順菴 安鼎福의 천주교 비판』, 석사 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2001.

Ahn Jeong-bok's Awareness and Response to Catholicism through His Letters

Cho, Jihyoung

This paper examines Ahn Jeong-bok's awareness and response to Catholicism in the late 18th century, focusing on the 19 letters he left. The reason why we specifically examined his letter in this paper is to understand Ahn Jeong-bok's awareness and response to Catholicism in more detail by life cycle, taking into account the timing and recipient of the letter. Through this, this paper attempted to understand various problems in the early day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Catholic Church by identifying Ahn Jeong-bok's activities and actions in the final years of his life after writing a critical article on Catholicism.

Ahn Jeong-bok became a disciple of Lee Ik and encountered Catholic books, and in his mid-40s, he read *De Deo Verax Disputatio*(天主實義) and pointed out heresy based on discussions on the theory of heaven-hell and soul theory. In particular, Ahn Jeong-bok criticized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concepts of Li(理) and Taeguk(太極) used by Matteo Ricci from the perspective of Confucian Neo-Confucianism. However, at this time, his criticism of Catholicism remained largely at the level of academic research.

On the other hand, as a young disciple of Lee Ik engaged in full-fledged Catholic faith activities after 1784, Ahn Jeong-bok's criticism of Catholicism changed into a steep difference between "heretical exclusion" to protect Neo-Confucianism. This period corresponds to the later years of his life,

over the age of 70, and he recognized the danger of Catholicism until his death. He wrote letters to the young disciples of Lee Ik to recommend that he stop Catholicism. In addition, he also left critical writings on Catholicism such as the *Cheonhakgo*(天學考) and the *Cheonhakmundap*(天學問答). In addition, efforts were made to promote a coalition of criticisms of Catholicism with colleagues around him, while spreading awareness against Catholicism. In particular, it is a very remarkable point that Ahn Jeong-bok devoted himself to the spread and sharing of anti-Catholicism awareness right up until the moment he died. As such, Ahn Jeong-bok's series of responses to Catholicism can be said to explain why he is a key figure in the group that criticizes Catholicism.

* **Key Words:** Ahn Jeong-bok, Seongho's Right Wing,
 Criticisms of Catholicism, Heretical Exclusion,
 History of the Korean Catholic Church